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일곱 번째

셋째 화와 일곱째 왕국의 등장: 주일법의 예언적 의미

Jeff Pippenger

2023-10-29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는 "그 시각"에 기치로서 하늘로 들어 올려진다. 그 시각에 "둘째 화는 지나갔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온다." 이슬람은 일요일 법령 "지진"의 "시각"에 오는 일곱째 나팔이자 셋째 화이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들에게 이르는 큰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보았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사람 칠천이 죽었으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느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리라.' 하였다. 하나님 앞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스물네 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여, 주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다스리시므로 우리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못 나라가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와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나 큰 자에게 상 주실 때가 이르렀으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그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1:12-19.

두 증인은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구름은 예언적으로 천사들의 무리를 상징한다. 이 글들에서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리고 하박국의 도표들에서 볼 수 있듯이, 화이트 자매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로 표상된 각각의 기별이 예언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에는 각기 하나의 천사로 묘사되지만, 한밤중 외침의 기별은 많은 천사들로 나타난다고 밝힌다. 천사들의 군대에 의해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선포될 때 두 증인은 하늘로 들어 올려지며, 이로써 그들은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의 광선은 해처럼 밝아 보였다. 그리고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음성을 들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그를 맞으라!'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할 한밤중의 외침이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져 낙심한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들 앞에 놓인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예비하였다.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맨 먼저 받은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손하고 헌신된 자들에게 보내어져, 그들로 하여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고 외치도록 강권하였다. 그 외침을 맡은 이들은 서둘러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고, 낙심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이 사업은 사람의 지혜와 학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침을 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거스릴 수 없었다. 가장 영적인 이들이 먼저 이 기별을 받았고,

전에는 그 일을 주도하던 이들은 맨 나중에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라!'는 외침을 더욱 크게 하는 데 동참하였다." 초기문집, 238.

도시의 십분의 일을 파괴하는 그 지진의 때에 칠천 명이 죽임을 당한다. 그 지진은 미국의 일요일법을 의미한다. 예언에서 도시는 왕국을 상징하며, 미국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으로 이루어진 왕국의 십분의 일이다. 미국은 일요일법의 지진 때에 전복되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기를 그치고, 이어 열 왕 가운데 맨 앞선 자, 곧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그들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인 교황권에게 자기들의 왕국을 넘겨주기로 합의할 것이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넘겨 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양과 싸우겠지만, 어린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충성된 자들이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방언들이다. 네가 짐승 위에서 본 그 열 뿔들은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넘겨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그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7:12-18.

유엔의 열 왕들은 "동의"하여 "그들의 전 세계적인 왕국을 짐승에게 넘겨준다." 그들은 "한마음"이며, 시편 83편에서 "한뜻으로 함께 의논하였다" 한 것과 같다. 아합은 열 지파의 왕으로서, 이사야 23장에서 두로의 음녀와 불법적인 음행의 관계를 맺었다. 아합과 이세벨의 불법적인 관계는 세례 요한으로 대표된 엘리야의 때에 있었던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법적인 관계를 예표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자였고, 다니엘 7장에서 로마 제국은 열 뿔로 이루어져 있다. 그 열 뿔은 아합의 열 지파 왕국으로 예표되었고, 둘 다 유엔의 열 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아합과 헤롯이 그 불법적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했으므로, 그들의 역할은 상징적 칠십 년의 끝에 자기 노래를 부르는 두로의 음녀를 위해 이단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었다.

"왕들과 통치자들과 총독들은 스스로에게 적그리스도의 낙인을 찍었고, 성도들—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벌이러 가는 용으로 묘사된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증언, 38쪽.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때 땅의 짐승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통치를 멈추는데, 이는 그것이 방금 이세벨과 음행했기 때문이며, 그 뒤 유엔의 지도권을 장악한다. 그런 다음 그것은 그들이 자국에서 일요일 법령 때 이미 이루었던 것처럼, 온 세상으로 하여금 짐승의 형상을 전 세계적으로 세우도록 강요한다.

그는 짐승 앞에서 행할 권능을 받은 그 이적들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땅에 사는 이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는 권세를 받아 그 형상이 말하게 하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그는 또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 또는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다. 요한계시록 13:14-17.

아합과 헤롯, 로마 제국의 열 왕과 유엔의 열 왕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러 가는 용을 상징한다. 이는 이세벨이 이단으로 규정한 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언제나 수행하는 이가 이세벨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은 일차적으로는 사탄을 대표하지만, 이차적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의 상징이다. 대쟁투, 439쪽.

일요일 법령이라는 지진이 있을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칠천 명"이다. 다니엘 11장 41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이라"고 한다. 일요일 법령이 도래할 때 넘어지는 자들은 그 위기를 위해 준비하지 않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들이다. "칠천"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무리를 상징한다. 일요일 법령의 위기를 표상하는 갈멜산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스라엘에 칠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언급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아뢰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1-5.

'칠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규정되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일요일 법령의 지진으로 무너진 자들은 바로 그때 그곳에서 현대 영적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불충실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남은 자들이다. 고대 문자적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번 중 두 번째로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그 땅의' '용사' '칠천' 명이라는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는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유력자들을 포로로 삼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또 모든 용사들, 곧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모두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 왕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론 왕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 마타냐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열왕기하 24:15-17.

일요일 법령의 지진 때에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무너지고 나면,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째 나팔이다. 일요일 법령의 '지진'의 '때'에 이슬람이 공격한다!

첫째와 둘째 화의 시기에 나타난 이슬람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예언적 역할을 수행하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전쟁 방식이 일반적인 전쟁 전술과 달랐다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들의 전쟁 방식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기습하는 것이었다.

"assassin"이라는 단어는 그 시기의 이슬람 전사들의 관행에서 유래했다. 그들의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 가미카제와 같았다. 이슬람 전사들은 표적을 암살할 때 자신들이 죽을 것을 각오했다. 이런 이유로, 전사들 사이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공격 전에 해시시로 취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흔한 관행이었다. 그들이 희생자를 덮칠 때는 그것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일어났으며, 원하는 정신 상태를 위해 해시시에 의존한 것과 비밀스러운 기습이 결합되어, 해시시라는 단어와의 연관성 때문에 "assassin"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기반을 이루었다.

셋째 화와 일곱째 나팔이 "속히 임하리라."

마찬가지로 1844년 10월 22일, 언약의 사자는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셨다. 화이트 자매는 언약의 사자 도래의 "갑작스러움"을 그의 오심이 "예기치 못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므로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된 네 가지 "오심"은 모두 예기치 못했고 갑작스러웠다.

다니엘 8장 14절에 보여진 바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다니엘 7장 13절에 제시된 인자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시는 것,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것은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혼인에 임하는 신랑의 오심으로도 표상된다. 대쟁투, 426.

열 처녀의 비유는 문자 그대로 반복되며, 따라서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던 네 가지 '오심' 모두가 일요일법령인 그 지진 때에 다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 논평하면서, 화이트 자매는 일요일법령의 지진, 곧 밤중소리의 완전한 성취에서 상징되는 갑작스러움과 예기치 않음을 가리키는 증언을 덧붙인다.

품성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한밤중에 엄숙한 음성이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고 선포되자, 잠자던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났고, 누가 그 일을 위해 준비했는지가 드러났다. 두 부류 모두 뜻밖의 일을 당했지만, 한쪽은 비상사태에 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아무 준비가 없었다. 품성은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 긴급한 상황은 품성의 진가를 드러낸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별, 위기, 예기치 못한 병이나 고통, 곧 영혼을 죽음과 맞대면하게 하는 어떤 일은 품성의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영혼이 은혜로 붙들려 있는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이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시험의 때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우리의 등불은 꺼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켜 두고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모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자기들의 품성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품성은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895년 10월 17일.

일요일 법령의 지진이 일어나면, 미국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아니게 된다. 위기에 대비하지 않은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 중 남은 칠천 명은 짐승의 표를 받도록 준비된

성품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이슬람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도래한다. 이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낼 때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기 때문이다!

1844년 10월 22일에 모두 성취되었던 네 가지 '오심'은 그 후 다시 반복된다. 첫 번째 오심은 다니엘서 8장 14절의 성취로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그것은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한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확증하였다. 그 성취는 지진의 "시간"을 표상하는데, 이는 주일법에서 시작되며, 이슬람이 주일법 제정으로 인해 미국 위에 "그의 심판"을 가져오는 "시간"이다.

말라기 3장의 언약의 사자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에 걸쳐 그가 세우신 성전에 갑자기 와서, 밀러주의 역사에 속한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왔다. 일요일 법령의 지진이 일어날 때, 언약의 사자는 부활한 죽어 마른 뼈들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 갑자기 오며, 14만 4천의 역사에 속한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으러 온다.

일요일 법령의 지진이 있을 때, 인자께서 아버지께 나아가 다니엘 7장 13절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라를 받으시는데, 이는 그가 1844년 10월 22일에 하신 것과 같다. 이는 그 지진의 '때'에 '하늘에서 음성들이 있어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는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지진의 때에 그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살해되었던 거리에서 앞서 부활한 두 증인이 일어선다. 그때 그들은 강한 군대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라오디게아의 재림교인들 가운데 남은 칠천 명은 전복된다. 그때 그곳에서 슬기로운 알곡이 어리석은 가라지와 분리된다. 이어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받으시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데, 그것은 또한 셋째 화이기도 하여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이르고, 그때 "열방"은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임한다."

열방을 분노케 함은 이슬람의 예언적 역할이며, 그것은 지진의 때에 시작되어 인류를 위한 은혜시기의 종결과, '주의 진노가 임하였도다'라는 말씀으로 제시된 마지막 일곱 재앙까지 계속된다. 미국의 일요일 법령과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나타나는 은혜시기의 종결 사이에는, 셋째 화(이슬람의 상징), 일곱째 나팔(이슬람의 상징), 그리고 열방을 분노케 함(이슬람의 상징)이 세 가지 상징적 증인으로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일요일 법령에서의 이슬람의 도래로 성취됨을 증언한다.

초기의 밀러파 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는 실패한 예언을 바로잡은 것이었다. 밀러파 역사에서 그 실패는,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밀러파 역사 초기에 필라델피아인들은 1843년 도표의 오류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가리셨기 때문에, 실패한 예언을 제시했다.

Future for America의 마지막 시기의 라오디게아 운동에서, 하나님은 그 실수를 손으로 덮어 주신 적이 결코 없었다. 예언적 적용에서 시간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가린 것은 인간의 손이었다. 인간의 손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한다.

14만 4천의 종결 운동에서, 시간을 적용하는 오류는 죄였다. 왜냐하면 예언적 시간의 적용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죄된 시간 적용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사건으로 예표되었고, 또한 오직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다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웃사가 무시한 사건으로도 예표되었다. 그러한 죄악된 행위나 불이행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 죄에 대한 정의는 오직 하나,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모세는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범했고, 웃사는 성소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범했으며, 이 운동은 하나님의 예언적 법을 범했다.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 되었고, 재림 운동도 그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언적 진리들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

그녀의 절박함 속에서 십보라는 즉시 직접 그들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이는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메시지에 시간 적용이 결부되도록 방치한 죄에 대해 즉시 드러내야 했던 회개를 상징한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웃사의 행동에 대해 깊이 회개한다. 이 운동이 2020년 7월 18일에 대한 예측에서 시간 적용이 어떤 식으로든 옳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세와 십보라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진정 지킬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웃사가 언약궤를 만졌는지에 대해 실제로는 상관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2020년 7월 18일은 거짓된 예측이었으며, 거짓이었던 요소는 바로 시간이었다.

이러한 진실들은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나아가 주님의 흠어진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며, 때를 정하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는 때가 다시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이들이 때를 설교함으로 생겨나는 거짓된 흥분에 사로잡히고 있음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때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나는 이 기별이 그 자체의 기초 위에 설 수 있고,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 때가 필요하지 않으며, 큰 능력으로 나아가 그 일을 이루고, 의로우심 가운데 신속히 마쳐질 것을 보았다." 경험과 견해, 48.